



‘근본’에 대한 믿음 없으면 평등한 진여 못 만난다

정원 스님은 ...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하여 파주 고려산 도솔암으로 출가 했다.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 했으며 군대를 다녀 온 후 독학으로 경전을 연구했다. 포교 현장에서 청년 법회를 이끌기도 하고 봉선사 총무국장 등 소임을 맡았다. 도솔암과 불암산 석천암에서 정진했다. 2002년 봉선사 능엄학림에 입학하여 과정을 마치고 학업을 거쳐 현재 강사를 맡고 있다.

경전 공부는 원전 보면서 외우고 반복해야 지혜 생겨

교종본찰 봉선사 경학 수행도량으로 발전할 것 확신

봉선사 능엄학림 강사 정원 스님

정원

세상이 온통 눈에 덮였다. 산과 들, 집과 길이 눈을 덮어쓰고 사금파리에 반사되듯 차가운 겨울 햇살을 쬐고 있었다. 온기를 잃어버린 겨울 햇살을 비집으며 조심조심 달리는 차들이 '문명의 이기'라는 오만 이름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중이었다. 광등 가는 길, 제설차가 울 거를이 없는 수목원 길은 설국(雪國)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 같았다. 수목원 초입에서 좌측으로 차를 돌리면 곧바로 나타나 봉선사 주차장. 눈이 수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일주문에 닿으니 누군가 암전하게 길을 열어두었다.

정갈하게 열린 길에 서니 주변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부도와 탐비들, 연꽃 유치원건물 그리고 고목들은 팔을 벌려 눈을 받아주고 있었다. 연꽃이 반발했던 못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눈만 덮여 있다. 그 속에 마른 연꽃기와 달그락 거리는 연방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통차집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잘 안으로 들어서는데 청풍루와 회랑채 사이의

좁은 문에서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 봉선사능엄학림 강사 정원(淨圓·64) 스님이었다. 허리 숙여 합장 인사를 올렸다.

"저는 스님을 뵈러 왔는데 스님은 어디 가시는 길 이십니까?"

"나는 내 방에 가는데, 눈길에 시간을 잘 맞춰오셨군요."

스님의 방은 정갈했다. 그리 밝지 않은 조명 속에 원전 경전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책상위에도 원전들이 펼쳐져 있는데 까만 글씨들이 종이에서 튀어 오르는 듯 했다.

"원래부터 경학을 하셨습니까?"

여쭙고 보니 우문(愚問)이다.

"원래부터가 어디 있나요? 그저 인연이 닿았을 뿐이지요. 어찌어찌 그렇게 됐어요."

우문에 헌답(賢答)이 베풀어진다.

어느 날 정원 스님은 어느 노스님의 부름을 받았다. 토굴을 하나 짓는데 일을 거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거절할 입장이 아니라서 바깥을 쟁겨 노스님께

갔다.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고 이우고 토굴이 다 지어졌다. 그리고 그 토굴에서 지내게 됐다. 노스님이 법당에 경전 한 짝을 모셨는데 <화엄경>이었다. 구체적으로 '80화엄'이었다. 경전을 보는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읽었다.

"80화엄의 현답이 모두 8권인데 그걸 읽으면서 나 스스로 번역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과연 내가 이걸 번역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조차 할 틈 없이 읽고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경문을 적고 번역을 하고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현답을 번역해 보았는데 손으로 글씨를 쓴 A4 용지가 1000장이었고 각주를 1000여 개나 달았더군요. 아차, 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좀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뜻이 있는 곳엔 길도 있다. 스님은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봉선사에서 '본사(本寺)가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느냐?'는 말이 들렸다. 그래서 봉선사 능엄학림에 학인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됐다. 속가 나이 55세 때다.

"그 연세에 학인으로 학림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우문이다.

"아니지. 내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결심이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학림을 마치는 6년 동안 즐겁게 공부했어. 결국 공부는 대중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학인으로는 배우는데 매진하고 학감으로는 학감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봉선사의 한 축을 지킨 정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공부'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홀로 하는 공부는 진전도 느리고 자칫 내태해지기 쉽지만 대중이 함께 하면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태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의를 준비하고 가서 학인들과 마주 앉아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학인들이 알아 오기도 해요. 또 학인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하려면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문반 4명 연구반 5명, 9명의 학인이 수학 중인 능엄학림에서는 4교(전문반)와 <화엄경>(연구반)을 주로 공부한다. 정원 스님은 4교를 강의한다. 봉선사 능엄학림은 가르치고 배우는 도량이기도 하지만 경전에 대한 깊은 연구로 탄실한 결실을 내놓기도 한다. <대승기신론> <능엄경> <서장> <선요> <금강경요해> <금강경간정기> 등의 사기(私記)를 완역하여 조계종교육원회에서 출간했다.

사기란 경전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경문이나 선대 연구자의 주석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따로 써 둔 메모다. 그래서 해서나 행서로 흘려 쓴 글씨의 판독이 어렵지만 경전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18세기의 호남지방을 대표하던 강백연담유일(1720-1799) 스님과 영남지방의 대강백인약의소(1746-1796) 스님의 것이 대표적인 사기다.

정원 스님은 요즘 <원각경>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보통 <원각경> 연구자들은 함허(1376-1433) 스님의 주석서를 보는데 정원 스님은 규봉종필(780-841)스님의 주석서와 사기들을 함께 대조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다. 책상에 펼쳐진 몇 권의 경서와 참고서적들이 <원각경> 관련 자료들이었다.

"여러 자료들을 대조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공부가 짧은 게 다 할 수 없으니 수시로 조실스님께 여쭙러 가야 해요. 조실스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명쾌합니다."

오늘의 봉선사가 교종본찰인 것은 월초 스님에서 운허 스님으로 운허 스님에서 월운 스님으로 내려오는 대강백들의 굳은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봉선사의 어른들이 아니면 오늘날 동국여경원의 성과도 없었는지 모른다. 교화 발흥에 대한 선대(先代)의 유지를 일생토록 지켜 온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역,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등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앙대사전, 당분초, 영남재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등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